

이재명, '비명횡사 공천 논란' 확산에 "언론 잘못 심각"

"일부 언론 가짜뉴스로 여당 허위 주장 근거 만들어"
"윤희룡,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땅 근처로 확 바뀌"
"국민의힘 채용비리 의혹 김영주 영입해 전략공천"
"간담회 안 하던 윤, 선거 다가오니 대놓고 불법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여당의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도 정말 심각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정면조준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명횡사 비명횡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당내 공천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천을 두고 우리당 공천이 사천 공천이니 혹은 공천이니 찬명 공천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41명의 진명 공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읽어봤다"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하지만 진명, 진명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진명으로 분류됐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는 단수공천 받으니까 진명했다가 경선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진명이라고 쓴 곳도 있었다"며 "이게 언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이자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꽃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국민의힘)에서 단수로 과감하게 추천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뀌 버린 원희룡 전 장관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인천에선

GTX(광역급행철도) 노선도 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교의 극단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소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에서 50점을 감점했고 배정된 점수 50점이 0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서 공천을 했다"며 "국민들에게 취업시켜주려고 권성동·김영주 이런 분들을 공천했느냐. 이제 국민들은 그 두분에게 줄 서면 다 취업 되는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어쩔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같은 돈봉투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되면 절대 공천하지 않는다"고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으셨는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지 않느냐.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



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 관련자들도 과감하게 공천을 했다"며 "임종득, 신범철 후보 등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는가. 책임을 묻지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불법 선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집중적으

로, 아예 대놓고 '어쩔레'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하느냐. 경찰, 검찰은 이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을 두고 대체 뭐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의 성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이라며 "국민은 언젠가 이 난장판 무법천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여수시의회, 로비 작은 갤러리 운영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여수시의회 로비에 지역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를 운영한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의 일환으로 시 의회 로비를 지역 예술인의 창작·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유수성 작가 '소아의 내일' 전을 운영한다.

유 작가는 "자연 속 존재들이 삶의 힘과 위

안, 자유로움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전시 목적을 밝히며 "그림은 일상 속에서 내가 아닌 나를 발견하게 해 주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했다. 시 의회는 앞으로 지역 예술단체나 개인작가의 신청을 받아 연중 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제별 전시 기간은 많은 작가의 참여를 위해 14일 이내로 정했다.

김영규 의장은 "시 의회 로비에 북카페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의회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 작은갤러리는 2021년 10월부터 총 33회 운영했으며 서양화, 동양화, 풍경사진, 기록사진,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지역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이낙연, 오는 10일 광주 결의대회서 출마지 발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오는 10일 광주 출마 지역구를 공식 발표한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그 자리에서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 출마 지역구를 공개하는 이유를 묻자 "마냥 늦출 수는 없고, 민주당 경선에 저의 지역 선택이 영향을 안주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이지 민주당 경선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미래는 이날 지역구 출마지 준비 상황

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현재 공천 신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보통 선거 때 공천 신청을 1, 2, 3차로 나눠 받듯이 저희도 1차에 그치지 않고 2, 3차 신청을 계속 받을 생각"이라며 "이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 등 정치인과 함께 공천 상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명 출마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출마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공동대표는 "최근 영입, 통합, 협력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논의했고, 내일쯤 종합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